

고창군 전봉준 동상 건립 성금 '밀물'

3만8647명 참여 2억원 넘어서 군민 의견 수렴 동상 제작 착수 내년 탄생 166주년에 제막식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의 고향인 고창군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군민들의 성금이 2억원을 넘기며 모금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공동위원장 정남기·진윤식)는 최근 고창군청에서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고 모금 상황과 향후 동상건립 추진 일정을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성금 모금'은 현재(7일 기준)까지 3만8647명이 참여해 2억2400만원이 모였다. 성금 모금은 9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성금 모금과 함께 동상건립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설치 위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추진상황 보고회, 전북도 문화재 위원 자문 등을 거치며 최적의 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건립위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상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내년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동상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정남기 회장과 진윤식 회장은 "그간 군민들이 보내준 귀한 성금은 고창과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갖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 시키자"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근대민중운동의 효시다"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상 건립을 계기로 참여자와 유족, 기념사업, 발상지 고창군의 상징성 등이 높이 평가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전북도기념물 제146호로 고창 전봉준 생가터가 지정됐고, 무장기포지 역시 문화재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고창이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만성질환 967명에 '맞춤형 건강꾸러미'

이달까지 3차례 나눠 전달

순창군이 건강취약계층의 만성질환 96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꾸러미'를 전달했다. <사진> '맞춤형 건강꾸러미' 전달은 대상자를 질환별로 분류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1~2차 대상자인 547명에게 이달까지 전달하고 3차 대상자는 7월달부터 전달할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꾸러미'는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질환별 예방관리 리플릿과 비타민 영양제, 코로나 예방세트(핸드워시, 스프레이소독제) 외에도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운동밴드, 한방파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물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만성질환자의 우울감 증가 및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맞춤형 건강꾸러미를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유선을 통한 어르신 건강상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건강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보랏빛 향기 가득한 정읍허브원 라벤더 물결 '장관'

10만평 규모...힐링 관광지 각광 지난 주말에만 6000여명 찾아 7월 25일까지 '안녕! 라벤더' 운영

10만평 규모의 정읍허브원이 힐링 관광지 각광을 받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칠보산 구룡동에 조성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이하 정읍허브원)에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가 활짝 피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랏빛 꽃이 만개하자 보기 드문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온 많은 이들이 라벤더 향기 속에서 인생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정읍허브원은 지난달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안녕! 라벤더(Hello! Lavender season)'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말인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총 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조성한 정읍허브원은 지난



정읍허브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 처음 임시 개장하며 외부에 알려졌고 현재까지도 사진작가 등의 출사 명소에 주목받고 있다.

정읍허브원은 현재 30만주의 라벤더와 4만주의 라벤더를 심어 가꿔가고 있다. 특히 진한 향기로 유명한 라벤더 계열의 라벤더는 국내에선 흔치 않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읍허브원 관계자는 "정읍은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 여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구절초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며 "정읍이 많은 사람에게 색과 향기로 기억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새만금 수라갯벌 멸종위기 금개구리 집단서식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된 군산의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2급 양서류인 금개구리<사진>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 수라갯벌 생태조사를 한 결과 9곳의 물웅덩이와 주변 약 4천㎡에서 금개구리 수백 마리와 올챙이, 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개구리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양서류이자 국제자연보존연맹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한 종이다.

앞서 이 섬에서는 흰발농게 서식이 확인됐고, 주변 무인도에서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목격됐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수많은 멸종위기 종류가 확인된 만큼 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은 수라갯벌



을 공항을 건설하기에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로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라갯벌을 개발이 아닌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 제3일반산단 산업용지 분양 완료

익산시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제3일반산단단지 일반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제3산단 일반산업용지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제3산단은 지난 2017년 말까지 분양실적이 40%대에 머물렀으나 수요자 맞춤형 기업마케팅에 집중하며 분양률을 끌어올렸다.

시는 관리기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추가 등을

추진해 2018년 67%, 2019년 86%, 2020년 98%로 매년 분양계약률을 높여왔다.

특히 연무IC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 KTX-SRT가 정차하는 익산역 등의 교통망을 확보해 왔다.

제3산단은 현재 총 57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으며 192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산단에는 33개 기업이 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경 입주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산단 일반산업용지 분양 완료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3산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삼기면과 남산면 일원에 158만6859㎡ 규모(일반산업용지 109만9293㎡, 패션단지 16만8167㎡, 외투단지 31만9399㎡)로 조성된 3산단은 지난 2009년 착공해 5년간의 조성 공사를 거쳐 2014년 7월 준공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9월까지 폭염대책기간...TF팀 가동

남원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관리 TF팀을 가동한다.

남원시는 총 50개소 그늘막을 운영 중이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순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태풍 및 강풍 등 기상 변화 시에는 신속하게 그늘막을 접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로당, 보건지소, 금융기관, 스마트버스승강장

등 53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어르신 및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살수도 이루어진다.

또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활동도 추진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